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8호 (2023.07.28)

## ■ 이 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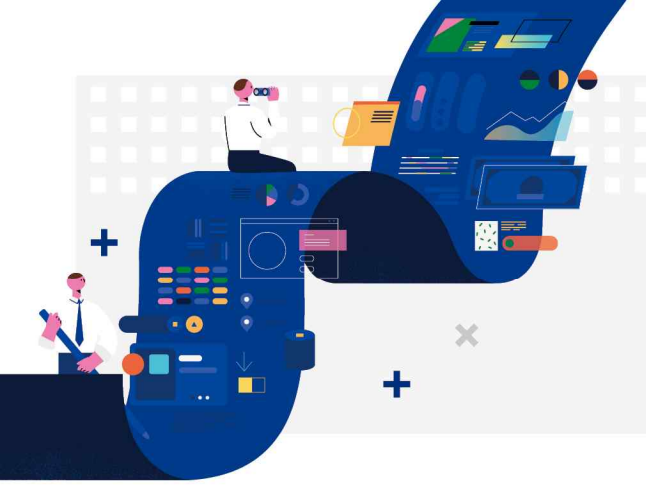
(산업) [소부장①] 국내 및 인천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

##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 국내 정책동향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8호 (2023.07.28)

## Cotents

### I. 이 슈

(산업) [소부장①] 국내 및 인천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 ..... 1

###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 10

### III. 국내 정책동향

(산업) 산업부, 하반기 실물경제 회복에 총력 ..... 11

(무역) 해외수출 한국 농식품에 ‘케이-푸드’ 로고 부착 ..... 11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 발표 ..... 12

(투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 펀드’ 조성 ..... 12

(교육) 교육부,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 13

(금융) 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금융지원 실시 ..... 13

(경제) 2024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5% 인상 ..... 14

(교통) ‘해상교통 혼잡도 예측 AI 분석모델’ 개발 착수 ..... 14

#### 연구진

|     |                        |
|-----|------------------------|
| 최태림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민규량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상민경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
| 김효영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


 산업

## [소부장①] 국내 및 인천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다변화 #정책 #지역산업 현황

- 최근 해외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 산업 관련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법안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23년 12월부터 ‘소부장 특별법’을 확대·개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예정<sup>1)</sup>
  -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경쟁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국내외에서는 주요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입 통제, 반도체·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의 니어쇼어링·리쇼어링 등을 통한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국가산업전략으로 부상
  - 금번 개정 법안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공급망 3법’으로 불리는 3가지 법안 제·개정안 중 하나로, 해외 변동에 의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법률 중 가장 먼저 국회를 통과하여 소부장 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개정 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하는 것을 목적
    -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조기경보시스템(EWS)·공급망센터 운영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 가능
- 소부장 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줄인 말로, 2019년 7월 일본의 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가 시작되며 발생한 신조어
  - 소재·부품·장비는 제품 생산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에서 원자재로부터 1회 이상의 합성 또는 가공공정을 거쳐 여러 가지 기능 및 영향을 가지게 된 중간재(제품, 물질)와 해당 중간재를 생산하거나, 중간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를 포함하는 의미
    - ‘소재’는 부품 및 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 다양한 적용성을 지니고 있어 부품 및 완제품이 가져야할 특정 기능을 좌우하는 물질로, 중요성이 점차 부각
    - ‘부품’은 완제품을 구성하거나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상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 부분에 쓰이는 일정 형태의 제품을 의미하며,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설비를 의미
  - 법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1)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및 6월 13일 공포.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으로 구분되는 산업 중 동법 시행규칙에 한정된 업종<sup>2)</sup>을 소재·부품·장비산업으로 구분

- 소부장 산업은 중간재를 다루고 있어 최종재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특징
  - 특히 최초 개발이 어렵고, 가격변동 및 공급처의 문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완벽한 대체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 발생 시 국내 제조업 전반에 영향
  - 소부장 산업은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분화한 업종에 따라 기술개발 현황, 국내 산업 위상, 필요 인력의 능력수준 등의 편차가 크고 필요한 지원 역시 차별적<sup>3)</sup>

[표 1] 소재·부품·장비산업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 소재·부품·장비산업 품목 |                                   |
|----------|------------------------------|---------------|-----------------------------------|
| KSIC코드   | 업종명                          | 소부장 구분        | 코드 및 명칭                           |
| 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소재            | 11. 섬유제품                          |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소재            | 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소재            | 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소재            | 1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소재            | 14. 비금속 광물제품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소재            | 15. 1차 금속제품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부품            | 21. 금속가공제품                        |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부품            | 25. 전자부품                          |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부품            | 26. 정밀기기부품                        |
|          |                              | 장비            | 32. 산업공정장비                        |
|          |                              |               | 33.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br>35. 계측장비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부품            | 24. 전기장비부품                        |
|          |                              | 장비            | 32. 산업공정장비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부품            | 22. 일반기계부품                        |
|          |                              | 장비            | 31. 정밀가공장비                        |
|          |                              |               | 32. 산업공정장비                        |
|          |                              |               | 33.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br>34. 제조로봇 자동화장비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부품            | 27. 수송기계부품                        |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부품            | 27. 수송기계부품                        |
| 58       | 출판업                          | -             | -                                 |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소부장넷(www.sobujang.net) 참고 및 재구성

- 2021년 기준 소부장 산업은 전국 제조기업의 약 절반이 속해있으며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 생산액의 약 60.3%를 창출하는 분야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산업축을 담당
  - 2021년 기준 전국 소부장 기업은 제조업의 약 44.3%인 30,108개 사로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sup>4)</sup>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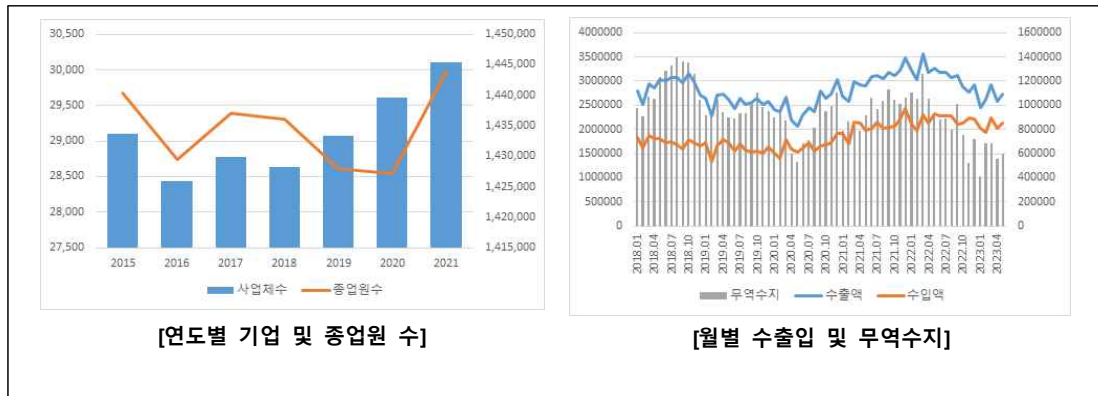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3) 국내에서 주위있게 살고 있는 소부장 산업 업종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항공 등이 존재.

4)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광업제조업조사' 및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의 제조기업 수에 차이가 있어 본문에서는

있으며, 소부장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 역시 2016년 전체 제조업의 54.0%에서 2021년 60.3%로 확대<sup>5)</sup>

- 2021년 말 소부장 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약 144만 명으로 국내 제조업 종사자 중 약 1/20이 소부장 기업 소속
- 2023년 5월 기준 국내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6.1%, 8.2%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상황에 비하면 소부장 산업의 무역 시황은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
- 23년 5월 국내 소부장 기업 수출액은 약 273.3억 원, 수입액은 약 212.9억 원으로, 소부장 산업 중 수출입액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부품 분야<sup>6)</sup>
- 2023년 4월 기준 국내 소부장 산업은 생산·출하·재고지수가 전월대비 동반 감소하며 시황이 부진한 상황
- 소부장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5% 감소한 92.0, 출하지수는 9.5% 감소한 96.0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유지
- 반면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8.7% 증가한 130.0으로, 2023년 1월(147.0)에 비해서 소폭 감소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기업 및 종업원수는 각각 개, 명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사업체수 기준, 우측은 종업원 수 기준으로 작성

2 : 수출입 및 무역수지는 10,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수출입 기준, 우측을 무역수지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전국 소부장기업 현황 및 수출 동향

[표 2]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생산통계

| 구분   | '23.01 | '23.02 | '23.03(p) | '23.04(p) | '22.04 | 전월비(%) | 전년동월비(%) |
|------|--------|--------|-----------|-----------|--------|--------|----------|
| 생산지수 | 106.0  | 93.0   | 98.0      | 92.0      | 105.1  | -6.1   | -12.5    |
| 출하지수 | 96.0   | 96.0   | 100.0     | 96.0      | 106.1  | -4.0   | -9.5     |
| 재고지수 | 147.0  | 142.0  | 136.0     | 130.0     | 101.0  | -4.4   | 28.7     |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2015=100)' 참고 및 재구성

\* 주 : 생산활동 관련 지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광업제조업조사'의 제조기업 수를 활용하여 기업 수 비중을 산출함.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의 제조기업 수를 활용할 경우, 전체 제조업 대비 소부장 기업 수는 약 41.5% 수준.

5) 2021년 국내 소부장 기업의 생산액은 약 1,025.6조 원, 부가가치 생산액은 386.6조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1.1%, 20.2% 증가.

6) 2023년 5월 기준 소부장 부문별 수출액 비중은 부품(60.6%), 소재(33.3%), 장비(6.2%) 순이며, 수입액 비중 역시 부품(57.5%), 소재(29.2%), 장비(13.3%) 순.

- 2021년 말 기준 인천에는 전국 소부장 기업 중 약 7.4%에 해당하는 2,214개 사가 소재하고 있으나, 인천소재 기업의 전국 소부장 부가가치 창출액 대비 비중은 약 3.0%로 낮은 수준
  -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소부장 기업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나, 전국 소부장 기업 대비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에 따른 2021년 지역별 기업 수는 경기(36.9%), 경남(11.1%), 경북(8.3%), 인천(7.4%) 순으로, 인천시 소재 기업 비중은 2015년 7.8%에서 2021년 7.4%로 감소
    - 2021년 말 기준 인천시 소부장 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약 85천 명 수준으로, 전국 소부장 기업 종사자의 약 5.9%가 인천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
  - 지역 내 소부장 기업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 창출액은 각각 38.3조 원, 11.6조 원으로 전체 기업 대비 약 3.0% 수준에 불과
    - 2021년 말 기준 인천시 소부장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지역 내 기업 수가 비슷한 경북(2,498개) 및 충남(2,086개)에 비해서뿐 아니라, 기업 수가 크게 차이나는 전남(582개) 및 울산(820개)보다도 낮은 수준<sup>7)</sup>

[표 3] 인천시 소부장 기업 현황

(단위 : 개, 명, 조원,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사업체 수 | 2,282<br>(7.8)  | 2,196<br>(7.7)  | 2,174<br>(7.6)  | 2,140<br>(7.5)  | 2,147<br>(7.4)  | 2,185<br>(7.4)  | 2,214<br>(7.4)  |
| 종업원 수 | 88,454<br>(6.1) | 85,684<br>(6.0) | 87,179<br>(6.1) | 87,200<br>(6.1) | 84,337<br>(5.9) | 85,310<br>(5.9) | 85,286<br>(5.9) |
| 부가가치액 | 10.0<br>(3.8)   | 9.8<br>(3.6)    | 10.6<br>(3.4)   | 10.2<br>(3.1)   | 10.0<br>(3.1)   | 10.5<br>(3.1)   | 11.6<br>(3.0)   |
| 생산액   | 29.8<br>(4.0)   | 29.3<br>(3.9)   | 31.7<br>(3.8)   | 33.0<br>(3.8)   | 31.2<br>(3.8)   | 31.9<br>(3.7)   | 38.3<br>(3.7)   |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괄호 안은 전국 대비 비중을 산출하여 표기

- 한편 인천에는 전국 소부장 전문기업 9,188개 중 713개 기업, 으뜸기업 66개 중 10개 기업이 자리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전문성·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이 많은 편<sup>8)</sup>
  - 2022년 12월 기준 인천의 소부장 전문기업<sup>9)</sup>은 전국 대비 7.8%에 해당하는 713개 기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39.9%), 경남(10.6%), 대구(9.3%), 경북(8.0%) 다음으로 다수의 전문기업이 자리
    - 소부장 전문기업은 △산업기능요원제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서 평가 가점을 획득

7) 부가가치 창출액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기(42.1%), 충남(12.4%), 경북(8.9%), 충북(6.3%), 경남·울산·전남(5.8%) 순.

8) 전문기업 수 및 지역 정보는 한국산업평가관리원(2023.06)에 따른 2022년 12월 기준, 으뜸기업의 정보는 한국산업평가관리원(2023.04)에 따라 2023년 3월 기준으로 작성. 2023년 7월 종전문기업 수는 9,828개로 파악되나 기업의 전문 분야 및 소재지 등이 목록으로만 제공되어 상세정보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2022년 12월 말 자료를 활용.

9) 소부장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란 의미로,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부장 부문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심사를 진행하여 지정하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 2023년 3월 말 기준 인천지역 으뜸기업 수는 전국 대비 15.2%에 해당하는 10개로, 경기(45.5%) 다음으로 많은 으뜸기업이 인천에 소재
-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 중 일정 조건<sup>10)</sup>에 해당하는 역량과 성장전략을 갖춘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선정

[표 4] 인천지역 소부장 으뜸기업 현황

| 구분 | 기업명        | 지역구 | 기업유형 | 분야    | 품목유형 | 으뜸기업 선정차수 |
|----|------------|-----|------|-------|------|-----------|
| 1  | (주)와이지원    | 연수구 | 중견기업 | 기계금속  | 부품   | 1         |
| 2  | (주)경인양행    | 서구  | 중견기업 | 반도체   | 소재   | 1         |
| 3  | (주)동진썬미캠   | 서구  | 중견기업 | 반도체   | 소재   | 1         |
| 4  | (주)상아프론테크  | 남동구 | 중견기업 | 자동차   | 소재   | 1         |
| 5  | (주)아모텍     | 남동구 | 중견기업 | 전기전자  | 부품   | 1         |
| 6  | 엘티메탈 주식회사  | 서구  | 중견기업 | 디스플레이 | 소재   | 2         |
| 7  | 주식회사이너트론   | 연수구 | 중소기업 | 전기전자  | 부품   | 2         |
| 8  | (주)아이블포토닉스 | 연수구 | 중소기업 | 전기전자  | 소재   | 2         |
| 9  | (주)에스피지    | 남동구 | 중견기업 | 기계금속  | 부품   | 3         |
| 10 | (주)엠씨넥스    | 연수구 | 중견기업 | 전기전자  | 부품   | 3         |

\* 자료 : 한국산업평가관리원(2023.04)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지역구는 기업명 검색 시 나오는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

- 정부는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019.08)’을 시작으로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0.10)’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등을 통해 국내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공급망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 정부는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부장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0년 10월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
    - 동 계획에서는 국내 소부장의 △개발·생산역량 확충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국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환경 마련에 집중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자립 R&D 확대를 통해 국내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12대 국가 전략기술<sup>11)</sup>에 대한 초격차 확보를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과제의 일환으로, ①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29%에서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 ②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50% 이하로 조정을 목표로 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추진
    -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바이오·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소부장 특별법 개정 △대체 수입처 발굴 및 민간비축 확대 등 공급망 지원체계 강화 등의 정책을 포함
  - 2023년 7월 산자부는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금속, 화학, 전기전자 등 7개 분야의 신규과제를 공고하여 소부장 기업 지원을 추진

10) 소부장 으뜸기업 신청에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핵심전략기술 인증은 ①총매출액 대비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비 3% 이상 ②핵심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5건 이상(동일 특허가 여러 국가 등록 시 1개만 인정) ③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연구인력 4인 이상 보유 ④전문투자조합, 관련 법률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의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 필요.

11) 동 계획에서 제시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 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등.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2.12)

[그림 2]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업무계획 -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인포그래픽

- 현재 인천시는 실증센터 운영, 앵커기업 협력, 연구개발 진흥 등 지역 내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지역 내 소부장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
  - 인천은 지난해 12월 남동산업단지에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센터'를 개소하여 소부장 산업 중소·중견기업의 육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연구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시제품 인증·판로개척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2023년 2월에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지원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이외에도 △소재 부문 강소기업인 와이엠티(주)의 연구개발센터 유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항공·스마트제조 분야) 유치 등 각 분야의 소부장 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
  - 그러나 현행 인천시의 소부장 관련 정책들은 다양한 산업부문을 동시다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만큼 자칫하면 각 지원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세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단계적·전략적 지원을 추진할 필요
    - 소부장 산업은 제조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한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장비 등이 다른 분야로 파생·확산될 수 있기때문에,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지역 소부장 발전을 위한 단계적 전략의 구체화가 요구
    - 인천시의 13개 전략산업<sup>12)</sup> 중 소부장 산업의 기여가 필요한 부문은 주로 제조업이 기반이 되는 △항공 △첨단자동차 △반도체 △로봇 △바이오 △물류 △신재생에너지 △디지털·데이터 △환경 등 9개 분야
    - 시에서는 소부장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문과 느리지만 확실하게 기반부터 쌓아야 하는 부문을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필요

12) 인천시의 13개 전략산업은 △항공 △첨단자동차 △반도체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데이터 △환경 △문화콘텐츠 △메타버스.

## 제조 >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제조장비

- 2023년 6월 기준 반도체산업은 올해 들어 가장 양호한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나, D램·낸드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체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감소<sup>13)</sup>
  - △PC출하량 개선 △모바일 신제품 출시 △AI서버 증가 등 하방산업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6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수출 실적의 기저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고 전년동월대비 약 28.0% 감소
    - 글로벌 수요부진 및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역시 수출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당월은 2023년 들어 가장 양호한 수출 실적을 기록
  - D램 및 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제품의 저가 지속이 반도체 수출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기업들의 메모리 감산효과 가시화, 고성능 DDR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전망
    - 국제 시장에서 D램 고정거래<sup>14)</sup> 가격은 2022년 8월 대비 약 절반 가까이 하락한 1.36으로 올해 들어 계속 1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낸드플래시 고정거래 가격 역시 2022년 8월 이후 지속 하락세

[표 1] 반도체 수출액 및 주요품목 가격

(단위 : 억\$, \$)

| 구분                     | '22.11           | '22.12           | '23.01           | '23.02           | '23.03           | '23.04           | '23.05           | '23.06           |
|------------------------|------------------|------------------|------------------|------------------|------------------|------------------|------------------|------------------|
| 반도체 수출액<br>(전년동월비 증감률) | 84.5<br>(-29.8%) | 90.6<br>(-29.1%) | 60.0<br>(-44.5%) | 59.7<br>(-42.5%) | 86.0<br>(-34.5%) | 63.8<br>(-41.0%) | 73.7<br>(-36.2%) | 89.0<br>(-27.9%) |
| D램 고정가격                | 2.21             | 2.21             | 1.81             | 1.81             | 1.81             | 1.45             | 1.40             | 1.36             |
| 낸드플래시 고정가격             | 4.14             | 4.14             | 4.14             | 4.14             | 3.93             | 3.82             | 3.82             | 3.82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2023.07.01.)' 참고 및 재구성

- (전국) 우리나라의 2023년 5월 반도체 생산지수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6월 반도체 수출액 역시 전월대비 소폭 증가하며 반도체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개선
  - (생산지수) 2023년 5월 국내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8.4% 증가, 전년동월대비 17.1% 감소한 105.3으로, 지난 2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

13)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3월 수출입 동향(2023.04.01)'.

14) 고정거래란 기업 간 사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로, 현물시장에 비해 규모가 크고 반도체 시장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침, 현물시장 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현물가격으로 대략적인 추세 예측이 가능함.

- 전국 반도체 제조 부문 생산지수 역시 전월대비 12.9% 증가, 전년동월대비 16.7% 하락한 124.6으로 일부 회복하였으나, 출하지수 및 재고지수 역시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경기 국면이 전환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
  - **(품목별 수출액)** 2022년 6월의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2023년 6월 반도체 수출액은 모든 품목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시스템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하며 개선세
  -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8.1%, 전월대비 4.8% 감소한 553,144천 달러로, 지난 2월 저점을 지나면서 등락을 반복하며 회복하고 있으나 시황 개선이 더딘 것으로 확인
  -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문별 수출액은 각각 전월대비 33.4%, 11.0%, 21.3% 등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개선의 조짐
- **(인천)** 2023년 5월 기준 인천지역의 생산지수는 전국과 유사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6월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세 역시 한풀 꺾인 상황
- **(생산지수)** 2023년 5월 기준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2.5% 증가,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한 120.8로 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
  - **(품목별 수출액)** 인천시 반도체 품목별 수출액 누계는 전월대비 9.8%, 전년동월대비 24.4% 감소한 1,140,135천 달러 수준으로, 세부 품목별로는 수출 상황에 차이
  -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13.2%, 전년동월대비 26.8% 감소하며 전국과 동일한 추세를 보인 반면,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43.8% 증가했음에도 전월대비 15.2% 감소하여 전국 추이와 상이
  - 반도체 디바이스는 2021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최근에는 1,000천 달러 내외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장비의 경우 전월대비 92.4%, 전년동월대비 13.1% 크게 상승한 73,461천 달러 수준으로 세부 품목 중 가장 급격하게 수출이 증가

[표 2]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 지역 | 항목         | '23.02 | '23.03 | '23.04<br>(p) | '23.05<br>(p) | '22.05 | 전월비<br>(%) | 전년<br>동월비<br>(%) |
|----|------------|--------|--------|---------------|---------------|--------|------------|------------------|
| 전국 | 전자부품 등 제조업 | 76.7   | 101.8  | 97.1          | 105.3         | 128.0  | 8.4        | -17.7            |
|    | 반도체 제조업    | 78.3   | 113.1  | 110.4         | 124.6         | 149.5  | 12.9       | -16.7            |
| 인천 | 전자부품 등 제조업 | 110.7  | 115.6  | 117.8         | 120.8         | 134.8  | 2.5        | -10.4            |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및 통신 장비 제조업(C26)' 및 '반도체 제조업(C26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의 경우, '반도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시스템 반도체(HSK854231)]



[메모리 반도체(HSK854232)]



[반도체 디바이스(HSK8541)]



[반도체 제조장비(HSK848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반도체 품목별 수출 동향(2023.06)

## [ 부록 ]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3.06 잠정)

(단위 : 십만\$, %)

|         | 전국     |       |         |       |        | 인천     |       |        |       |       |
|---------|--------|-------|---------|-------|--------|--------|-------|--------|-------|-------|
|         | 수입     |       | 수출      |       | 수지     | 수입     |       | 수출     |       | 수지    |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 반도체     | 98,958 | -12.4 | 148,796 | -19.5 | 49,839 | 13,904 | -19.6 | 15,590 | -14.3 | 1,686 |
| 자동차     | 25,323 | 49.4  | 80,590  | 42.3  | 55,267 | 1,265  | 17.9  | 8,470  | 41.4  | 7,205 |
| 기계장비    | 56,528 | -6.2  | 61,690  | -3.4  | 5,162  | 3,600  | -13.2 | 5,244  | 6.4   | 1,644 |
| 바이오-의약  | 8,700  | -8.8  | 6,290   | 11.5  | -2,410 | 776    | -40.6 | 4,043  | 14.7  | 3,267 |
| 바이오-화장품 | 1,753  | -2.2  | 7,315   | 13.1  | 5,562  | 29     | 3.2   | 1,590  | -2.6  | 1,561 |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 산업 &gt; 산업부, 하반기 실물경제 회복에 총력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는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던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는 경제 활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활성화 및 수출 플러스를 위한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
  - 지난 6월 무역수지 흑자전환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 사상 최대 외투실적을 달성하는 등 경제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수출 확대 △투자 촉진 △R&D혁신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안보 통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 (수출) 범정부 수출지원체계 가동 및 하반기 184조 원 무역금융 공급 등 수출산업 전반을 지원하고, 주력 수출국가 및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과 동시에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을 수립해 중장기 무역경쟁력을 강화
  - (투자 및 R&D) 투자 촉진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을 통한 투자 속도를 제고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 △산업별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글로벌 R&D 협력 및 인재 유치 강화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추진
  - 이외에도 지역 산업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등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계획

## 무역 &gt; 해외수출 한국 농식품에 '케이-푸드' 로고 부착



## #농림축산식품부

- 7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한국산 농산물 및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케이-푸드(K-FOOD)'로고를 사용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가 유럽연합(EU), 일본 등 44개국에서 우리 기업이 '케이-푸드' 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이후 상표권 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동 로고의 사용을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을 높이고,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동 로고 사용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
  -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상품을 한국에서 생산·제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사용 가능
  - 동 로고는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육성부는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수립·발표하여,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 동 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기부는 산업현장 소통·정책토론회·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청객 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의 맞춤형 전략을 마련

| 정책 대상 | 추진전략                  | 세부 정책과제                                                                                                                                                                                   |
|-------|-----------------------|-------------------------------------------------------------------------------------------------------------------------------------------------------------------------------------------|
|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중소기업 중심 수출 드라이브 촉진</li> <li>• (디지털)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li> <li>• (함께성장)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li> <li>• (위기극복)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li> </ul> |
| 창업·벤처 |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li> <li>• (디지털) 미래선도 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li> <li>• (함께성장) 新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li> <li>• (위기극복)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li> </ul>       |
| 소상공인  |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li> <li>•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li> <li>• (함께성장)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li> <li>• (위기극복) 회복·재기 총총한 사회안전망 구축</li> </ul>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가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
  - 정부는 지난 5년간 국내 지역투자 금액이 대폭 상승한 반면 지역 간 형평 위주의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 사정으로 인해 지역투자가 단발적·소규모 사업으로 끝나 실제 효과가 미미했다고 분석
  - 이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투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펀드 방식'을 도입
    -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 펀드에 기반하여 필요에 따라 민간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만든 자 펀드를 결성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추진
    - '바텀업(상향식)' 방식의 프로젝트 발굴과 민간 참여 인센티브 제공, 의사결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공익성 △수익성 △민간참여를 제고할 계획



#교육부

- 지난 13일 교육부는 신산업·신기술분야 및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재설계된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
  -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주요 변화에 따라 직업계고 학과의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900여 개 학과 개편을 지원
    - 올해 사업은 반도체, 디지털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실무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존 전공분야와 융합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마이크로 교육과정 유형을 신설하여 직업계고가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정평가 결과, 학과 개편 대상으로 70개교, 96개 학과가 선정됐으며,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에는 10개 과정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선정 학교의 안정적인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학과 개편 학급당 2억 5천만 원, 마이크로 과정당 3억 원의 교부금을 지원할 계획
    - 인천에서는 신산업·신기술 학과개편에 계산공업고(2), 인천재능고(1), 인평자동차고(1)가, 학교자체발전전략에 인천여상(1), 인천해양과학고(1)가 선정되었으며, 마이크로 교육과정 개설에 인천전자마이스터고(1)가 선정

#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게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
  - 수해 피해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
    -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
  - 또한 금융감독원의 각 지역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현장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충북·충남 등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방침

## #최저임금위원회

-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되어, 내년부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 수준이 될 예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
    - 18일 개최된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의견대립에 따라 공익위원이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한 시간급 9,820원(2.1%)~10,150원(5.5%)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폐회
    - 19일 개최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9,920원)에 대해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은 찬성했으나 일부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가 부결되고, 노·사 최종제시안 투표를 통해 사용자위원 최종제시안인 9,860원으로 결정
  - 한편, 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 명 ~ 334만 7,000명, 최저임금 영향률은 3.9 ~ 15.4%로 추정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상 교통량과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에 착수하여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
  - 분석모델 개발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선박위치발신장치(AIS, V-PASS)를 통해 확보·관리하고 있는 선박위치정보데이터를 통합·활용
    - 금번 개발 예정 모델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선박의 위치, 선수방위, 속도 정보 등을 활용해 해상에서의 시간대별, 격자별 교통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1시간 후의 교통량과 혼잡도를 예측하는 방식
  - 행안부는 개발 모델이 선박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해 해양 안전사고를 경감하고, 해양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 동 모델의 예측 결과정보를 활용하면 해상 안전관리기관은 교통 혼잡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통안전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해상교통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속력제한구역 지정 및 통행 분리대 설치 등의 선박 안전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
    - 혼잡 구역을 지나는 선박들은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 경로를 우회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보다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을 전망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3.06.13.
-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공급망 안정화 지원 법적 기반 마련”, 2023.05.25.
- The Report, “분산법·소부장특별법 국회 통과…“소부장 경쟁력·공급망 안정화””, 2023.05.25.
- 전기신문, “소부장 경쟁력·공급망 안정화 지원한다...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023.05.26.
- 뉴시스, “소부장법 국회 통과…지지부진 ‘공급망 3법’ 속도 불나[글로벌 공급망 재편②]”, 2023.05.28.
- 소부장넷, <https://www.sobujang.net>.
- 국가통계포털(KOSIS),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급망 ON Vol.01」, 2023.04.28.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급망 ON Vol.02」, 2023.06.28.
- 관계부처 합동,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2019.08.05.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2020.10.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17) 발표”, 2022.12.14.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23년 수출 6,800억불 이상 달성, 설비투자 100조원, 외투 300억불 이상 유치로 민간주도성장 견인”, 2022.12.27.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시험대(테스트베드) 강화”, 2023.07.17.
- 인천광역시, “인천시, 소부장 산업 육성위한 지원센터 남동산단에 개소”, 2022.12.13.
- 인천광역시, “인천시,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기업 경쟁력 강화위해 협력”, 2023.02.10.
- 인천광역시, “IFEZ 핵심 전략 산업 특화·육성 탄력 받는다”, 2023.03.24.
- 인천광역시, “소부장 강소기업 ‘와이엠티’ 연구개발센터 착공…2025년 준공”, 2023.06.28.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산업통상자원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2023.07.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 수출되는 한국 농식품에 ‘케이-푸드’ 로고 붙는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7.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5년 동안 선진 벤처스타트업 1000개 이상에 2조 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 2023.07.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민간·지자체 주도 ‘지역 투자 펀드’ 만든다”, 기획재정부, 2023.07.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직업계고,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로 개편…96개 학과 선정”, 교육부, 2023.07.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 금융위원회, 2023.07.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올해 대비 2.5%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2023.07.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내 최초 ‘해상교통 혼잡도 예측 AI 분석모델’ 개발 착수”, 행정안전부, 2023.07.19.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8호(2023.07.28)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07월 28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http://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